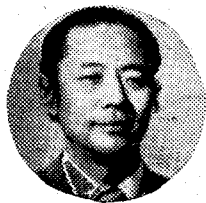


# 食糧自給과 雜穀活用



朱 軫 淳  
(韓國營養學會 會長)

白米와 小麥의 營養學的인 比較를 통해得失에 對하여서는 前에 여러번 論하고 當局의 올바른 營養政策을 希望한바 있다. 現在 우리 나라 小麥의 消費 추세를 보면 1972年에 230萬M/t 需要에 對하여 國內生産은 24萬M/t이고 輸入 充當이 189萬M/t이며 앞으로 그 需要가 增加되어 1976年에는 282.4萬M/t需要에 國內生産은 29.3萬M/t 輸入豫定이 255.1萬M/t으로 그 輸入量은 繼續增加될 것으로 豫想된다. 今年에는 多幸히도 昨年度의 米穀 豊作의 德分으로 小麥輸入은 昨年度輸入分에서 消費節約 30萬M/t의 減縮으로 150萬M/t을 輸入豫定이라 한다.

우리는 밀가루로 白米消費를 代替하려는 소위 “粉食獎勵”에 對하여 그 得失을 指摘해 왔다. 食糧이란 原則的으로 그 地域社會에서 生産되는 食糧으로 充當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한때 보리 豊作인 때에는 보리의 消費勸獎이 力說되는가 하면 國內生産量이 不過 24萬M/t에 不過한 小麥消費가 勸獎되어 生産量의 10倍以上量이 輸入되고 남아돌아 간다면 大麥마저도 이제는 不足되어 72년에는 25萬M/t이나 輸入하는 實情이니 營養과 食糧政策의 確固한 長期政策이 要望되고 있다.

또 國內에서 增産이 可能的한 作物은 보리나 大豆만이 아니라 옥수수 粟(조) 稷(피) 메밀(蕎麥)등도 充分히 考慮 對象이 될 것이고 薯類는 그 貯藏·加工法이 開發된다면 그 增産이 容易함에 비추어 代置食糧으로서 큰 役割을 할수 있을 것이다.

當局은 米穀增産을 爲한 種子改良, 營農法 改善等에 對해 많은 注力을 하고 있는 것은 多幸한 일이며 小麥이나 大麥의 增産에 對해서도 적지 않은 注力을 하는 것으로 믿는 데

大豆, 옥수수, 粟, 稷, 메밀, 薯類等에 對해서도 많은 研究投資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食糧增産에 못지 않게 重要的 것은 食糧의 消費節約이다. 우리는 都市에서 흔히 體重過多의 사람들을 본다. 勿論 個人的 體質이나 習性에 따른 것이고 또 攝食은 個人的 自由이니 그것을 論難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現象은 곧 우리 國民에도 必要以上の 食糧消費傾向이 增大되어 가고 있음을 端的으로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消費節約에 對에선 우리는 白米消費節約을 爲해 混食을 勸奨했고 一部 粉食獎勵도 도움이 된 것이다 이런 經驗을 통해 이제는 食糧의 消費節約을 爲해 좀더 積極성을 띤 施策이 있을법한 時期라 생각된다.

장사가 된다해서 많은 加工食品이 商品化되어 市販되고 있는데 그중에는 營養學的으로 보나 經濟的으로 보나 一般의 過重消費를 勸奨하는 食品들이 적지 않을 것 같다. 製造業者나 當局이 生産食品의 消費對象이나 目的이나 營養政策에 相反되지 않을 것을 市販하도록 하는 것이 重要할 것이다. 또 國內에서 生産되는 여러 雜穀類의 適切한 加工方法을 開發하여 普及시킨다면 食糧政策的으로나 國民營養上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主穀類의 消費節約을 爲해서는 主穀以外 雜穀의 生産과 經營이 매우 緊急하고도 重要的 것으로 믿는다.

또 사람이 直接먹지 않은 間接食糧이라고 볼수 있는 畜産·家畜을 爲한 飼料用 食糧의 生産 또한 主穀의 消費節約과 食糧自給에 큰 役割을 한다. 이點에 對해서는 當局에서 充分히 配慮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現在 飼料用 糧穀도 糧穀輸入量의 적지 않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앞날 畜産業이나

養鷄業等은 더욱 그 需要激增으로 繁昌할 것이고 또 發展시켜야 할 産業으로 믿는다.

그런데 昨今の 飼料波動으로 많은 群小業體들의 倒産·放賣等の 萎縮現象을 자아내고 있는데 이는 바로 間接食糧인 飼料用雜穀生産의 重要性을 端的으로 뜻하는 것이다.

이들 畜産業이 酪農業이나 養鷄等은 國內外의 食糧消費 추세로 보나 輸出産業으로서나 또는 國民營養改善으로 보나 그 將來性的 展望에 對해서는 再論할 必要없이 強調되어야 할 點이고 主穀 消費節約의 큰 一翼임에 틀림없는 데 그 育成 發展의 第一歩는 飼料用糧穀의 國內 生産이고 當局은 이 分野의 增産에도 注力있기를 希求한다.

一方 過去 한때에는 食糧의 生産過剩은 穀價의 下落現象을 자아 내기도 했지만 食糧消費의 長期추세는 결코 食糧의 過剩生産으로 해서의 難點은 食糧不足으로서의 困難에 比할 바가 아니고 生産은 많을수록 多多益善이다. 다만 生産過剩食糧이 있다면 備蓄策을 마련해야 할 것임은 初步的인 常識일 것이다. 飼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飼料用雜穀生産을 再三 強調하는 바이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農政當局에서 食糧自給을 爲해 여러 意慾的인 計劃을 推進함은 매우 希望的이며 ① 食糧生産圈의 維持·擴大를 爲해 絶對農地의 轉用禁止 相對農地에서는, 轉用許可條件으로 他農地 開墾의 義務化 ② 遊休野山 321,000정보를 農耕地로 開發하기 爲한 制度等은 매우 좋은 計劃이다.

이런 計劃은 한걸음 나아가서 糧穀의 生産計劃과 좀더 密着되었으면 그 計劃의 現實性이 強調될 것이다. 卽 우리 國內에서 需要될 食糧의 國內生産計劃이 마련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良質의 農地에 農家所得 增大를 爲해 여러 特殊作物들이 많이 生産되는 것은 좋은 現象이지만 혹시 그중에 食糧增産과는 거리가 먼 國內 消費를 爲한 사치性作物의 生産에 置重되는 事例가 있다면 이 機會에 우리는 再考해야 할 것이다. 勿論 國外 輸出로 外貨獲得을 目的으로 하고 實際로 그렇다면 可히 勸獎할만한 일이라 하겠다.

이런 一方 새로운 加工食品의 發達이 또한 切實히 要望된다.

小麥粉을 爲主로한 라면, 빵類 菓子類 등의 製品은 매우 普遍化되어 있는데 比해 大豆나 薯類나 其他 雜穀의 加工食品이며 水産物, 林産物 등의 加工食品의 開發과 利用은 아직 尙 尙원하다 하겠다.

이런 觀點에서 食品業界에서는 새로운 國內 生産原料를 利用한 손쉽게 어느 家庭에서나 利用할 수 있는 食品이 開發되어 普遍化된다면 食糧節約에 크게 寄與할 것으로 믿는다.

또 한걸음더 나아가서 離乳期의 어린이나 幼兒, 小兒를 爲한 食品의 開發은 國民營養向上을 爲해 큰 도움이 되겠고 國民所得增大와 더불어 그 展望도 매우 밝을 것으로 믿어진다. 또 매우 特殊한 食品으로서 病患者나 病乏者를 爲한 食品 開發 또한 크게 바람직하다. 治療醫學上 매우 필요로 하는 “無鹽간장” 등은 比較的 簡單한 것인데 아직도 얻기 어려운 實情이니 이런 方面의 새로운 食品開發이 要望된다.

食品加工業은 우리나라 産業으로서는 比較的 年輪이 어린 部門으로서 앞으로 더욱 더 많은 新種加工食品의 開發과 發展의 餘地가 매우 크다고 하겠고 또 食糧消費節約이나 食糧

自給策에 큰 貢獻을 할수 있을 可能性이 至大하며 그 發展이 크게 期待된다.

또 멀지 않은 將來 우리 나라에서도 國民學校를 爲始한 各級學校에 對해 學校給食이 制度化되고 또 各職場에서의 團體 給食이 勵行될 것으로 기대되는 데 이런 特殊目的을 爲한 食品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이는 매우 多目的의 새로운 食糧消費形態를 이룰 것이다. 長期間의 集團給食을 爲해서 構想해야 할 것이며 이들 多量의 食品은 그 地域에서 生産되는 原料食品을 適切히 加工·活用함으로써 營養效果의 向上을 期待하고 또한 많은 主穀消費節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主穀外에 前記한 薯類라든가 各種의 多樣한 雜穀의 活用으로서 國民의 食生活 傾向을 改善하고 食生活構造를 轉換시켜 食糧自給自足과 國民營養向上에 크게 寄與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또 이런 學校給食이나 團體給食을 爲해 새로운 食品工業分野의 發展이 期待되고 새로운 産業發展의 一助도 될 것이다.

그런 一方 團體給食이나 學校給食을 爲해 酪農業이며 畜産業製品의 活用 또한 크게 期待된다.

이러한 綜合的인 食糧·營養政策과 食品工業 發展이 이룩됨으로 해서 食糧의 多樣한 生産과 加工·活用·消費構造가 普遍化되어야만 비로써 우리의 食糧自給이 이룩될 것으로 믿는다.

그러기 爲해서 過去에 “混粉食獎勵”를 爲해 料理講習이며 展示會 등으로 많은 財源을 投入하여 小麥粉의 消費를 勸獎하던 業者들은 止揚하고 많은 種類의 雜穀生産과 그 加工·活用に 더 注力하고 나아가서 그런 生産物의 加工·活용을 爲한 研究 普及를 爲해 더 많은 努力이 早速히 이루어 지기 바란다.